

새로운 소재를 이용한 속건성 제품 “Dryfast Adaptive”

이탈리 회사인 Pontetorto는 이너웨어용 속건성 원단인 “Dryfast Adaptive”를 출시하였다. 이 제품은 신체의 온도변화에 빠르게 반응하여 냉감 및 열적 쾌적성을 제공하는 제품이다. “Dryfast Adaptive”는 스위스 회사인 HeiQ에 의해 개발된 친수성 고분자 “Adaptive”를 이용한 제품이다.

“Adaptive” 고분자가 섬유표면을 필름형태로 감싸고 있으며 낮은 온도에서 수분을 흡수하고 저장한다. 반면, 높은 온도에서는 수분 확산성이 증가하고 고분자의 구조가 변하면서 이전에 저장했던 수분이 방출된다. 따뜻한 상태에서는 수분의 증발이 피부온도를 낮추어 착용자에게 쾌적함을 느끼게 하고 서늘한 상태에서는 수분의 확산과 증발이 감소하여 신체를 따뜻하게 유지시킨다.

시험결과에 의하면 35℃에서 100% 폴리에스터 “Dryfast Adaptive” 직물의 수분증발은 일반 100% 폴리에스터 직물보다 최고 3배 빠르다고 한다.

“Dryfast Adaptive”는 수분흡수를 통해 건조성능을 제어하고, 수분증발 및 열적 완화기능을 통해 냉감성능을 조절하는 제품이다.